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거부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

이윤주\*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Effect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Moral Courage

Yun Ju Lee<sup>\*</sup>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거부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6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자료는 SPSS 24.0 Program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는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거부민감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11, p<.001$ ). 임상현장에서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 용기에 대한 교육 및 비정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간호전문직관, 거부민감성, 도덕적 용기,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moral courag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t was collected from August 26, 2022 to September 2, 2022 for nursing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4.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but did not show a correlation with rejection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F=16.11, p<.001$ ).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in the clinical fiel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and non-regular program on moral courage with great interest i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undergraduate course.

**Key Words** : Nursing student, Nursing professionalism, Rejection sensitivity, Moral courage, Effec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현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직업적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며 환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1].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 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시점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과 실시간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부당하거나 비인권적인 치료 행위나 무력감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2]. 도덕적 용기

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 어떠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3]. 간호에 있어 도덕적 용기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정한 존재로서 청렴함, 책임과 정직 옹호, 헌신과 인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4]. 그러므로 도덕적 용기를 지닌 간호사는 윤리적인 딜레마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원칙에 따라 옳은 행동을 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의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1, 3]. 반면, 간호사의 도덕적 용기가 부족한 경우 도덕적 고뇌 및 비윤리적인 행동

\*Corresponding Author : Yun Ju Lee(daminzimin@naver.com)

Received November 11,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Revised November 17,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을 촉발하며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 간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간호대학생은 향후 전문직으로서 간호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갈등상황을 인지하여, 도덕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에 대해 알고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5].

도덕적 용기는 개인 및 조직적인 요인에 의거하여 영향을 받는 데 그 중 개인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개별적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다[6]. 간호학부에서의 부정적 행동이나 경험이 임상에서 보이는 불건강한 관행적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를 볼 때[7], 간호대학생의 이론 및 실습 수업 시 도덕적 용기와 연결되는 경험에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논문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제안하고 있다[1,8].

기존 국내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 성향[9] 및 도덕적 고뇌[10]로 나타났으나 도덕적 용기, 간호전문직관, 거부민감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인 개인의 신념이나 관념의 총합으로 간호 활동이나 간호 직업 자체에 대한 의식적 차원을 말한다[1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실천함에 있어 근거 기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12]. 따라서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올바른 간호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용기, 간호전문직관, 거부민감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3, 4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9]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거부민감성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거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 하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정서와 사고의 과정의 개념으로 대인관계 측면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의 하나이다[13].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가진 도덕적 용기를 발휘함에 있어 상황 또는 상대방과 대면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을 경우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그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이 높

아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므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행동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15]. 이에 간호대학생이 가진 거부민감성을 파악하고 도덕적 용기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거부민감성 및 도덕적 용기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도덕적 용기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거부민감성, 도덕적 용기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용기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거부민감성, 도덕적 용기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간호전문직관과 도덕적 용기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1지역 2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3,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이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간호실무 현상을 이해한 대상으로 한다고 제안한 연구[15]와 3학기 이상의 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6]를 근거로 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도덕적 용기로, 간호사의 역할, 윤리, 전문성에 대한 개념들을 교과목으로 이수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1학년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표본 크기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 수준 .05, 검정력 .90, 독립변수 7개를 기준으로 한 결과, 표본 수는 최소 130명

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를 파악한 연구[10]에서 확인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47명에게 자료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6부를 제외하여 141부를 사용하여 표본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간호전문직관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1]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Kim과 Yun[17]이 수정·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5개 하위요인인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및 간호의 독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범위는 18-9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 2.3.2 거부민감성

연구대상자의 거부민감성은 Park과 Yang[18]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요인인 예기분노, 예기불안, 과잉반응, 거부지각을 포함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소 16점에서 최대 80점까지이고 점수가 클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Park과 Ya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이었다.

### 2.3.3 도덕적 용기

세케르카(Sekerka) 등[19]이 개발한 Professional Moral Courage Scale (PMCS)을 Moon과 Kim[15]이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도덕적 목표와 실천, 단순한 지시수행을 넘어서, 위협을 감수함, 다양한 가치 기준 고려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척도로 점수 범위는 12점에서 최대 84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용기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oon과 Kim[15]의 연구에서 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5였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구글 설문 및 대면 방식으로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개강 전인 8월 29일까지는 대면이 불가하여 학과 온라인 게시판에 연구안내문과 온라인 구글 설문 주소를 탑재하였다. 연구안내문에는 연구제목, 목적, 소요시간 및 무기명으로 진행, 언제든지 철회가능함 및 연구자 연락처 등을 안내한 후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 설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학생의 연락처만 적도록 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개강을 한 8월 30일부터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 대면으로 연구안내문을 배포한 후 연구에 대한 설명, 무기명 입력, 철회 가능, 불이익이 없음 등 설명을 하였다.

강의실 맨 앞 좌석에 설문지와 설문지 수거함을 두고 완성된 설문지를 넣도록 안내하였다. 소정의 사은품(다과)은 설문조사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음도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30분 후 수거함을 회수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된 후 코드화하여 비밀을 보장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완료한 후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였다.

##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Program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거부민감성 간호전문직관과 도덕적 용기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용기는 일부 변수를 더미변수로 하여 t-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거부민감성과 간호전문직과 도덕적 용기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성 83.7%, 남성 16.3%였으며, 평균 나이는 25.1세였다. 학년은 4학년이 53.2%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종교는 75.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전공만족도는 만족이상이 75.2%를 차지하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N=141)

Variable	Categories	n(%) or M±SD
Gender	Female	118(83.7)
	Male	23(16.3)
Age(years)		25.1±4.21
Grade (year)	Sophomore	24(17.0)
	Junior	42(29.8)
	Senior	75(53.2)
Religion	No	107(75.9)
	Yes	34(24.1)
Subjective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1(.07)
	Moderate	34(24.1)
	Satisfied	75(53.2)
	Very satisfied	31(22.0)

### 3.2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거부민감성 및 도덕적 용기 정도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평균 평점은 3.7점으로 하위요인별 간호의 독자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전문성, 전문직 자아개념 및 사회적 인식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의 평균 평점은 2.7점으로 하위요인 중 과잉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도덕적 용기는 평균 5.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별 '도덕적 목표와 실천'이 5.4점으로 높고 '위협을 감수함'이 4.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용기

연구대상자의 도덕적 용기는 전공만족도가 보통이하인 경우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용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Table 3).

### 3.4 변수간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거부민감성은 도덕적 용기와 상관관계

**Table 2. Degree of research variables** (N=141)

Characteristics	Item M ±SD	Min.	Max.
Nursing professionalism	3.7±0.49	1.5	5.0
Self-concept of profession	3.8±0.57	1.5	5.0
Social awareness	3.0±0.76	1.0	5.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0.61	1.0	5.0
The roles of nursing services	4.0±0.65	1.0	5.0
Originality of nursing	4.2±0.91	1.0	5.0
Rejection sensitivity	2.7±0.70	1.0	4.3
Anticipated rage	2.6±0.91	1.0	4.8
Anticipated anxiety	2.4±0.82	1.0	5.0
Overreaction	2.9±0.92	1.0	5.0
Rejection perception	2.7±0.97	1.0	5.0
Moral courage	5.2±0.72	3.2	6.8
Moral goals & act	5.4±0.79	3.2	7.0
Going beyond compliance	5.2±0.96	3.0	7.0
Enduring threats	4.6±1.14	2.5	7.0
Multiple values	5.2±0.97	2.5	7.0

**Table 3. Differences of moral cour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1)

Variable	Categories	Item M ±SD	t or F	p
Sex	Female	5.2±0.72	.092	.927
	Male	5.2±0.78		
Grade	Sophomore	5.3±0.65	1.52	.222
	Junior	5.3±0.78		
	Senior	5.1±0.70		
Religion	No	5.2±0.74	-.90	.236
	Yes	5.3±0.69		
Subjective major satisfaction	≤Moderated	4.9±0.78	-3.21	.002*
	≥Satisfied	5.3±0.67		

\*p<.01

가 없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거부민감성과도 상관관계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도덕적 용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도덕적 용기의 하위요인 중 도덕적 목표와 실천, 다양한 가치 기준 고려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 3.5 연구대상자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고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5).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

**Table 4.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of nursing students**

variable	1	2	3	3-1	3-2	3-3	3-4
	r(ρ)						
1. Nursing Professionalism	1						
2. Rejection sensitivity	.085(.32)	1					
3. Moral courage	.322(.00)***	-.038(.65)	1				
3-1.moral goals & act	.369(.00)***	-.048(.58)	.934(.00)***	1			
3-2 going beyond compliance	.118(.17)	-.043(.61)	.787(.00)***	.621(.00)***	1		
3-3. enduring threats	.054(.52)	-.140(.10)	.706(.00)***	.530(.00)***	.599(.00)***	1	
3-4 multiple values	.364(.00)***	.154(.07)	.592(.00)***	.506(.00)***	.313(.00)***	.096(.26)	1

\*\*\*p<.001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9.7%였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beta=.316, p<.001$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6.11, p<.001$ )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Variable	$\beta$	t	p
Nursing professionalism	.316	4.014	<.001***

Adj.  $R^2=.097, F=16.11, p<.001$

Tolerance=1.000, VIF=1.000, Durbin Watson=1.922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용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공에 대해 만족이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령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Yoo[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전문직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20]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령에 대한 도덕적 용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가 25세 이상인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을 때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온 연구[10]와 일치하지 않았다. 다만, Yun 등[10]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점수차이를 보인 연령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지는 않았기에 추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령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들을 파악하여 도덕적 용기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는 평균 5.2점으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Yoo[9]의 연구에 제시된 평균과 일치하였으며, 간호대학생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의 평균 4.7점보다 높았다. 도덕적 용기의 하위 요인에 있어 '도덕적 목표와 실천'이 가장 높고, '위험을 감수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YUN 등[10]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Yoo[9]의 연구에서는 '단순한 지시수행을 넘어서'가 높고 '위험을 감수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부분 일치하였다.

예비간호사로 준비가 되는 학부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인 4학년은 임상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불안감,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다른 학년들에 비해 압박감을 받는 시기이다[21].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생각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드러내고 올바른 일에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다만, 도덕적 회복력과 도덕적 용기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22]에 따르면,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에서 윤리적인 딜레마를 경험하며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간호대학생의 나이가 많은 경우 도덕적 회복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연구에서 도덕적 용기와 도덕적 회복력 간에 정적 상관관을 보인만큼 고학년이 되는 가운데, 학업이나 임상실습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 심도 깊게 고민하면서 해결해 보고 그 가운데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도덕적 용기에 대한 역량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덕적 용기는 고뇌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23].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자기표현 역량의 증가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예비간호사인 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표현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부교육과정에서의 도덕적 용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5,8] 간호학과에서는 도덕적 용기를 제고할 수 있는 주장훈련프로그램 또는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평균 점수는 보통 이상으로 하위요인별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높고 사회적 인식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Yoo[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지만, COVID-19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고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COVID-19상황에서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하는 전문인 역할이 부각되었지만 감염관리 방역 지침에서 간호가 수행되는 부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부각되다보니 간호의 독자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도는 Lee와 An의 연구[25]의 평균 평점과 일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과잉반응 점수가 높았던 것에 비해 해당

연구에서 예기분노가 높았으나 평균 평점에 큰 차이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는 거부민감성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를 하기전부터 거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13],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상황에 대한 과잉지각이나 불안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에 있어 난감해 하며 방관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14].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26] 협력이 중요시되는 간호교육이나 간호업무 등에서 도덕적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거부민감성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결과 일반화를 함에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도덕적 용기를 제고하기 위한 명확한 기초자료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에서 대학생 및 교육과정에 비대면 방식에 참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대면 접촉기회가 줄고 윤리적인 고뇌의 상황에 적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감염병 대유행이 종식된 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도덕적 용기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거부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는 높은 편이었으며 도덕적 목표와 실천 항목이 높고 위협을 감수함이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간호전문직관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9.7%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를 높이기 위해 간호전문직관을 제고할 수 있는 학회, 공청회 등 전문직 역량강화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마련 및 지도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J. S. Murray. (2010). Moral courage in healthcare: Acting ethically even in the presence of risk. *The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5.
- [2] A. B. Hamric, J. D., Arras & M. E. Mohrmann. (2015). Must we be courageous?. *Hastings Center Report*, 45(3), 33-40. DOI : 10.1002/hast.449
- [3] V. D. Lachman. (2010). Strategies Necessary for Moral Courage.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15(3). DOI : 10.3912/OJIN.Vol15No03Man03
- [4] O. Numminen, H. Repo & H. Leino-Kilpi. (2017). Moral courage in nursing: A concept analysis. *Nursing ethics*, 24(8), 878-891. DOI: 10.1177/0969733016634155
- [5] L. Bickhoff, P. M. Sinclair & T. Levett-Jones. (2017). Moral courag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 literature review. *Collegian*, 24(1), 71-83. DOI : 10.1016/j.colegn.2015.08.002
- [6] E. Pajakoski, S. Rannikko, H. Leino-Kilpi & O. Numminen. (2021). Moral courage in nursing-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Nursing & Health Sciences*, 23(3), 570-585. DOI: 10.1111/nhs.12805
- [7] C. Balik, D. Sharon, S. Kelishek & N. Tabak. (2010). Attitudes towards academic cheating during nursing studies. *Med. & L.*, 29, 547.
- [8] Y. Zolkefli. (2022). Moral Courage and the Role of Nursing Education. *The Malaysian Journal of Nursing (MJN)*, 13(4), 10-11. DOI : 10.31674/mjn.2022.v13i04.002
- [9] M. S. Yoo. (2021).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8(1), 26-35. DOI : 10.22705/jkashcn.2021.28.1.26
- [10] H. Yun, S. Kim, H. E. Jang, S. Hwang & S. Kim. (2018). The Influence of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Moral Courag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1(4), 360-376. DOI : 10.35301/ksme.2018.21.4.64
- [11] E. J. Yeun, Y. M. Kwon,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 Korean Acad Nurs*,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2] E. H. Jo, S. J. Hwang & S. H. Kim. (2022). The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es of New Nurses.

- Korean Society of Nursing Research*, 6(1), 67-77.
- [13] G. Downey, & S. Feldman.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0, 1327-1343.
- [14] S. An & Y. Chung. (2016).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3), 719-741.
- [15] Y. Lin & Z. Fan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loneliness and self-esteem. *Current Psychology*, 1-10. DOI : 10.1007/s12144-021-02443-7
- [16] S. J. Moon & D. S. Kim. (2017). Convergence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for Professional Moral Courage Scale Translated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151-161. DOI : 10.15207/JKCS.2017.8.3.15
- [17] N. Hanifi, M. Moqaddam & Z. Ghahremani. (2019). Factors Related to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in Zanjan. *Preventive Care in Nursing & Midwifery Journal*, 9(1), 22-28.
- [18] S. S. Han, M. H. Kim,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19] M. J. Park & N. Yang. (2017). Valid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1), 103-127.
- [20] L. E. Sekerka, R. P. Bagozzi, R. Charnigo. (2009). Facing ethical challenges in the workplace: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rofessional moral courage. *Journal of Business Ethics*, 89(4), 565-579.
- [21] Y. S. Kim & E. J. Oh. (2016).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03-111. DOI : 10.5762/KAIS.2016.17.7.103
- [22] S. A. Ahn, & K. S. Lee. (2022). Factors related to Job-seeking Anxie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3). DOI : 10.5762/KAIS.2022.23.3.105
- [23] E. Gibson, G. Duke & D. Alfred. (2020).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moral distress, moral courage, and moral resilien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9(7), 392-395. DOI : 10.3928/01484834-20200617-07
- [24] Jeon, H. O. (2014).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adult attachment and self-assertiveness, on depress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7), 312-323. DOI : 10.5392/JKCA.2014.14.07.312
- [25] J. Y. Park, S. Y. Kim, Y. E. Jung, E. Jeong, E. D. Choi & J. Y. Ha. (2022).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10(3), 1-11. DOI : 10.15268/ksim.2022.10.3.001
- [26] Y. J. Lee, & S. Y. Ahn.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3), 371-379. DOI : 7/JKCS.2021.12.3.371
- [27] K. Seo. (2019).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Social Connection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4), 499-510.

## 이윤주(Yunju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우울, 자살, 정신건강, 직장내 괴롭힘
- E-Mail : daminzimin@naver.com